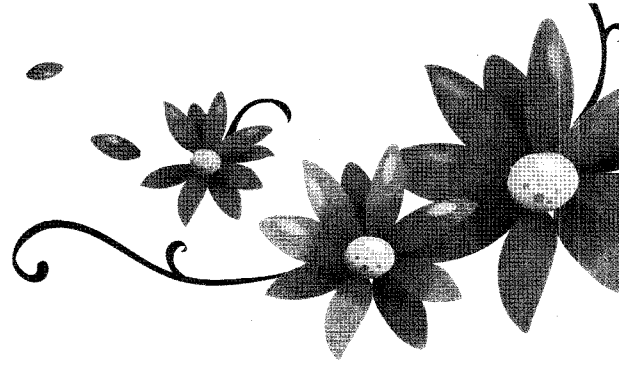




## 재활용산업의 선구자

# (주)태광수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태광수지(대표 : 김진춘)는 1992년 5월 창업 이래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에 주력해 온 친환경기업이다. 동종 업계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높은 생산성과 고품질,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는 태광수지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PE, PP, HIPS, ABS, POM(폴리아세탈) 등과 같은 원료를 만들어 현대 자동차, 삼성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공장 등에 원료를 납품하고 있다.

(주)태광수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PP는 반복 힘이 강해 유연성을 갖춘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PE는 밀폐용기, 식기 등의 주방원료로 납품된다. 또한 ABS는 TV, 라디오 하우징, 헬멧, 세탁기조와 같은 일용잡화에서 공업용품까지 그 용도가 다양하다. HIPS는 통신기기 부품이나 단열재, 건축, 가구재, 포장재, 절연재 등으로 사용되며, POM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계기류의 기어, 캠, 베어링, 완구 및 가정용품 등에 주로 사용된다.

폐플라스틱은 귀중한 자원으로 얼마든지 재활용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버려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환경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이 회사 대표 김진춘 사장은 30년간 폐자원 재활용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오고 있는 전문가이자 선구자이다. 그는 남들이 폐지나 고철 수집에 주력할 때 플라스틱도 많이 모으면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플라스틱을 수집했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직접 재활용사업에도 뛰어들게 되었다.

한편 최근부터 시작되고 있는 필름류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태광수지는 필름류 플라스틱을 펠릿화하는 재활용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태광수지는 30억원을 투자해 경남 김해시 본산공단에 1,300여평의 시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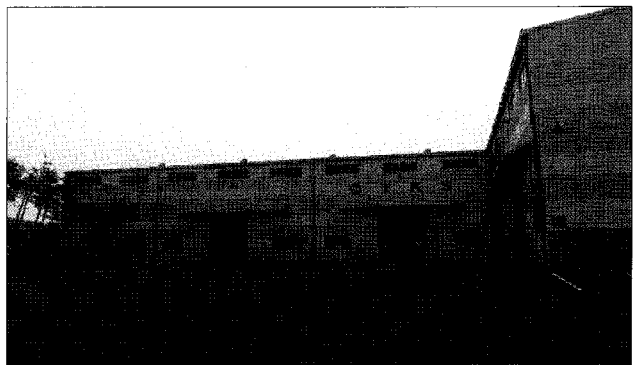
마련하고 TKS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기술은 그동안 주로 연료로만 재활용되던 라면봉지 등의 필름류 플라스틱을 선별, 파쇄, 세척, 분리, 건조, 용융, 가공 등 일곱 차례의 공정을 거쳐 파렛트, 옷걸이, 하수관, 건축자재 등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만드는 것이다.

월 450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TKS의 시설은 집진시설, 소음시설 등 완벽한 환경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미 생산물량의 전량을 파렛트 제조업체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마친 상태이다.

(주)태광수지는 그동안 환경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6월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김해 재활용 선별장을 위탁운영하면서 김해시가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김해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태광수지는 사회참여에도 모범적인 기업이다. 김진춘 대표가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잘 알고 있어 지난 1998년부터 매년 고향 모교의 학생들에게 어린이날 행사를 열어 주는 한편 어버이날에는 고향의 노인들을 모시고 관광을 비롯한 경로잔치를 열어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매월 불우아동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등 남모르게 선행을 실천해오고 있다.

앞으로 태광수지는 부산, 경남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진출해 폐플라스틱을 자원화할 수 있는 협동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 머지않아 국내최고의 친환경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김해시 본산공단에 위치한 TKS 공장 전경